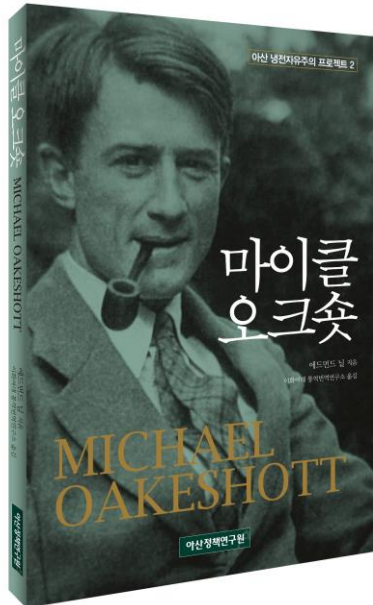


마이클 오크숏



분 류 | 인문, 사회

제 목 | 마이클 오크숏

지은이 | 에드먼드 닐

옮긴이 |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지 면 | 172쪽

정 가 | 15,000원

판 형 | 신국판

ISBN | 978-89-97046-50-8

발행일 | 2012년 11월 10일

저자에 대하여

에드먼드 닐(Edmund Neill) - 에드먼드 닐은 옥스퍼드 대학의 해리스 맨체스터 칼리지(Harris Manchester College)에서 근대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의 전공은 19세기 및 20세기 영국사와 정치사상사이다. 닐의 박사학위 논문은, 마이클 오크숏과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비교 연구한 것이었다. 닐은 마이클 오크숏에 관한 저서 외에도 《20세기 영국사 *Twentieth Century British History*》, 《유럽사상사 *History of European Ideas*》 등의 저서가 있고, 《정치학 리뷰 *Political Studies Review*》, 《타임스 문학섹션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같은 저널에 정치사상사에 관한 글을 발표해 왔다. 이 밖에 저서로 《19세기 유럽의 동반자: 1789-1914 *A Companion to Nineteenth Century Europe: 1789-1914*》가 있고 '유럽 정치사상에서의 실증주의: 1945-1970' *Positivism in European Political Thought: 1945-70*를 주제로 한 논문들을 연구하고 있다.

에드먼드 닐이 쓴 《마이클 오크숏》은,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오크숏의 사상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드먼드 닐은, 이 책을 통해 오크숏의 사상이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이후 정치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아산정책연구원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아산 냉전자유주의 프로젝트”의 두

번째 책이다. 지난 2012년 11월 9-10일 양일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마이클 오크숏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또 이 책 《마이클 오크숏》의 저자인 옥스퍼드대학의 에드먼드 닐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어판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하였다.

한국인이 마이클 오크숏의 저작에 관심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언뜻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 있다. 오크숏은 철저한 전통주의자로 알려진 정치철학자인 데다 그의 주요 관심사도 서구 유럽에 기울어 있고 어쩌다 미국 쪽에 눈길을 돌리는 정도였으므로, 세계 다른 지역에 소개하기에는 보편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사야 벌린, 칼 포퍼, F. A. 하이에크 같은 동시대의 다른 전후 사상가들과는 달리 오크숏은 자신의 사상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고,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사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보였다. 그보다는 주로 — 적어도 1950년대 이후부터는 — 런던정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연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서양 정치사상사의 핵심 인물들을 심도 있게 낱알이 해부하고 추상적인 용어들로 기술된 그의 필생의 역작 《인간행동론 *On Human Conduct*》(1975)을 공들여 다듬는 편을 선호했다. 벌린이 자기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만 자유를 정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경고했고, 포퍼가 전체주의 같은 닫힌 사회가 과학에 바탕한 연구와 정치 논의에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지적했으며, 하이에크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알기 어렵다는 근거로) 시장이국가보다 인식상의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면, 상대적으로 오크숏의 논지는 훨씬 이해하기 힘들고 모호해 보이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 동시대 사상가들이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전체주의의 해악에 반대하고 서구 자유주의의 미덕을 옹호하는 데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오크숏은 어떤 입장에도 속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으며 실용성 있는 조언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이론의 역할이나 인간의 삶에 속하는 하나의 활동으로서 정치가 지닌 한계를 주장하는 데 더 관심을 보였다.

게다가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듯 또 다른 문제까지 던져 주는데, 즉 오크숏의 작품은 첫눈에 너무도 나뉘어 있고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초기작 《경험과 그 양식들 *Experience and Its Modes*》(1933)에서 오크숏은 세계를 이해하는 철학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식의 한계에 대해 강조하려는 듯 보이지만, 전후에 쓴 각종 소론(《정치의 합리주의 외 소론 모음집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1962)으로 묶여 나온)에서는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지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연관된 각종 오해를 공격하는 데 목적을 둔 것처럼 보인다. 그에 반해 〈인류의대화에서 찾은 시의 음성 *The Voice of Poetry in the Conversation of Mankind: an essay*〉(1959)에서는 관조하고 심미하는 경험의 자율성과 중요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으며, 《역사론 외 소론 모음집 *On History and Other Essays*》(1983)과 《인간행동론》에서는 각각 ‘역사’ 양식의 까다로운 이론 측면을 기술하는 것과 자기만의 목적을 피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인간 연합 형태를 지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이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다면 그것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책의 목적을 오크숏의 저작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큰 그림을 제공하는 데 두었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크숏의 사상에는 이론과 실천 차원 양쪽에서 다원주의를 지지하고자 했던 일관된 논지의 흐름이 있으며, 그가 바람직한 다원주의를 근대성과 연관지었다는 점이다. 오크숏은 개개의 주제들에 대해 이런 저런 흥미로운 주장들을 내놓으려 하거나 매사 전통에 호소하려고만 했던 사상가는 아니었다. 그는 상당한 정도의 심오함과 일관성을 갖춘 사상가였으며,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꾸준히 근대성을 옹호한 인물이었다.

이론 측면에서 볼 때, 오크숏은 자연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가 따라야 할 표본을 제시한다는 많은 근대주의자의 주장에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근대 이전 시대(플라톤 이전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를 이론 분야가 실천이나, 타 분야와 완전하게 통합되었던 '황금기'로 보는 관점에도 동조하지 않았다. 즉 오크숏은 동시대 관념론자 R. G. 콜링우드와 달리, 근대성이 중세시대에 나타났던 이론과 실천 사이의 완전한 통합을 파기했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또한 저명한 미국의 정치이론가 레오 스트라우스처럼 서구의 모든 철학 전통은 부패했으므로 현대에 나타난 철학과 실천의 분리는 플라톤 이전시대의 참된 자연법칙에 대한 우리의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고질적인 예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경험과 그 양식들》 이래로 철학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한 이론 분야, 즉 '역사', '과학' 그리고 <인류의 대화에서 찾은 시의 음성>에서 다룬 '관조'에 이르기까지, 지루한 실천의 삶으로부터, 또한 한편으로는 '도덕상으로 타락한' 철학 활동 — 스스로는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다른 활동의 전제에 대해 가차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 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되어 주는 분야들을 계속해서 옹호했다. 오크숏은 실천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도 상호 간에는 분리되고 실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일단의 지식 분야의 탄생을 우려할 일이 아니라 참된 진보의 신호로 여겼다. 서로 다르고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각도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지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것이다.

실천 차원에서도 오크숏은 단순히 전통주의자에 머물지 않고 그의 연구에서 근대성의 주된 특징으로 간주했던 다원주의적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데에 점차 적극성을 띠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신념을 가장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진 정부 형태, 즉 '시민의 조건'을 지지하게 되었다. '시민의 조건'에 대해서는 《인간행동론》 제2부에서 매우 열정을 가지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치의 합리주의》처럼 전후에 쓴 소론들 중 가장 초기의 글에서는 정치를 포함해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전통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 사실이고, 심지어는 서구 전통 전체의 타락 가능성을 건드려 본 것도 사실이지만(특히 <바벨탑>에서), 이런 견해는 결코 오래 가지 않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대중 *The Masses in Representative Democracy*>(1957), <근대 유럽의 도덕성과 정치 *Morality and Politics in Modern Europe*>(1958)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행동론》의 세 번째 소론에서 오크숏은 서구 유럽 전통의 가장 중요한 경향을 규명해 보려 했다.

그리고 그 경향으로 12~13세기 이래로 이론과 실천 면에서 개인주의가 서서히 대두된 점과 그에 수반해 중세시대의 공동체 연대와 자아일체의식이 느슨해진 점을 꼽았다. 오크숏은 이러한 변화는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 근거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는, 각양각색

의 개인을 하나의 단일한 고정불변의 목적을 향해 몰아가는 그 어떤 종류의 합리주의적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부라고 믿었다. 또한 정부의 목적은 사회 내에서 개인의 실천과 욕구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동체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활동의 진로를 추구해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자신의 에세이 <보수주의론 *On Being Conservative*>(1956)에 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교회, 지역 공동체의 사회와 관련된 압력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통치 대상들에게 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나 그 정부는 또한 모든 개인이 계층 또는 지위와 무관하게, 예상치 못하거나 일관성 없는 명령 또는 불법으로 통과된 법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동일한 법의 대상이 되는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인간행동론》의 두 번째 소론, 즉 ‘시민의 조건’에 대한 생각에서 — 비록 관념상의 성격에 그치기는 하지만 — 설명하고자 한 바이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 연합을 통치하는 법 체계가 순전히 해당 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으로 통과되었다는 데 입각해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법이 바람직한 목적(예를 들면 “정의”같은 것)을 지켜준다거나 시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권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로지 그렇게 해야만 현대사회의 개인의 다원성이 정부에 의해 옹호되고 존중될 수 있다고 오크숏은 주장한다.

오크숏은 사실 불분명하고 모호한 사상가가 아니라 동시대 사상가 벌린, 포퍼, 하이에크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다. 이론(異論)의 여지는 있겠으나 오히려 오크숏의 견해가 다른학자들의 그것에 비해 우위를 갖는 점도 있다. 오크숏은 벌린과 달리 모든 법을 단순히 규제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권위를 갖춘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요점이다. 또한 포퍼처럼 그의 입장을 순전히 과학에 근거한 방식, 보다 자세히 말하면 반증(falsification)에 근거해 논지를 정립하는 뜻에 빠지지 않았으며, 하이에크처럼 경제적 회의주의, 사회진화론의 한 가지 유형에 입각해 논지를 펴지도 않았다.

오크숏이 제시한 것은 결국 근대성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환대하는 관점, 명석하고도 시적인 관점이다. 그는 이론상으로나 실천상으로나 다원주의를 옹호하며, 자신의 고국인 영국뿐 아니라 서구 사회 전체에 온건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그에게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며, 그것은 영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저자 에드먼드 닐의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목차

한국어판 서문

1. 마이클 오크숏의 생애

2. 다원주의와 근대성의 옹호자 마이클 오크숏

관념주의, 초기 저술들과 《경험과 그 양식들》

정치, 합리주의, 인류의 대화

오크쉴의 후기 저작: 《인간행동론》과 《역사론》

《인간행동론》에 대한 이론의 이해

시민의 조건

《역사론》

결론

3. 마이클 오크쉴의 사상에 대한 평가

4. 오크쉴 사상의 유효성,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에 관한 고찰

주석

이 책에 대한 언론보도 및 서평

마이클 오크쉴은 동시대인이었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칼 포퍼, 이사야 벌린과는 달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치사상가였다. 그래서 그동안 오크쉴의 사상은 난해하고, 신중한 독해를 필요로 해왔다. 하지만 에드먼드 닐이 쓴 이 책은 오크쉴의 사상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면서, 그의 사상이 어떤 시대적 맥락 속에서 탄생했는지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오크쉴이 현대적이면서도 다원적인 개인주의 사상가였음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 크리스토퍼 브룩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연구원, 케임브리지 대학 국제정치학과 조교수)

이 책은 오크쉴의 사상을 알기 쉽고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닐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오크쉴을 자유주의자로서 강조해왔지만, 사실은 보수주의자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보수주의는 정교한 정치이론으로서의 보수주의를 말한다. 닐은 또 오크쉴이-사람들이 오해하듯이-모더니티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모더니티를 포용하는 보수주의자였다고 강조한다. 당신이 교수라면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이 책을 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당신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라면, 이 책을 통해 오크쉴의 사상을 다시 숙고하고 재해석하게 될 것이다. 분량이 많지도 않은 이 정도의 책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 스튜어트 존스 (맨체스터 대학 지성사학과 교수)

오크쉴은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상가였고, 대화를 즐긴 인물이었다. 그는 독단주의와 전체주의를 무엇보다 혐오했다. 대신 그는 현대적인 것과 다양한 목소리, 자유와 다원주의의 신봉자였다. 닐은 이 책에서 오크쉴의 그런 사상과 기질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닐의 저작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오크쉴과 대화를 나누고 그를 자신의 지적 동반자로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 아서 오기(엘스터 대학 정치학과 교수)